

청소년의 부·모 애착과 자동적 사고 및 공격성*

박 정 녀[†]

최 해 립

서강대학교

본 연구는 청소년의 부·모 애착이 자동적 사고와 공격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 경기지역에 있는 중 고등학교 학생 893명(남 428명, 여 465명)이었다. 애착 척도는 옥정(1998)이 번안한 부모, 또래 애착 척도 개정판(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R)중 부·모에 대한 애착 척도를 사용하였다. 공격성 척도는 노안녕(1983)이 번안한 Buss와 Durkee(1957)의 공격성 진단 검사지로 이루어졌으며, 자동적 사고 척도는 문경주, 오경자, 문혜신(2002)이 번안한 Schniering과 Rapee(2001)의 아동기 자동적 사고 척도(Children's Automatic Thoughts Scales: CATS)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 애착이 높을수록 (부정적인)자동적 사고가 낮고, 공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동적 사고와 공격성사이 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이 나타나 자동적 사고가 높을수록 공격성은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셋째, 부·모 애착과 공격성간의 관계에서 자동적 사고가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 애착이 공격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보다는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의미이다. 즉 부·모 애착이 자동적 사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자동적 사고 또한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데, 부·모 애착과 공격성 사이에서 자동적 사고가 매개 역할을 함으로써 더 높은 관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주요어 : 청소년, 부모애착, 자동적 사고, 공격성

* 본 연구는 후기필자(최해림)의 지도로 선기필자(박정녀)가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연구(2004)를 바탕으로 한 것임.

† 교신저자 : 박 정 녀, 이현중학교, (449-913)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보정리 1174
 전화 : 016-758-7571, E-mail : pjnyeo@hanmail.net

청소년기에 경험하게 되는 신체적·생리적 변화 및 정서적, 인지적 변화는 청소년의 역할의 변화와 그에 따른 적응문제와 연결된다. 학교문제, 진로문제, 이성문제, 친구문제, 가치관문제 등에서 갈등을 겪으며 정체감을 형성해야 하는 중요한 변화에 직면하는 시기이다(장휘숙, 2004). 이 시기에 청소년들은 자신과 부모 또는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재형성이 필요하다. 우리의 중 고등학교 청소년들은 과중한 학업에 대한 부담으로 친밀하던 부모와의 관계가 갈등의 상황으로 바뀌는 경향이 잦으며 또한 부모로부터 자신들이 이해 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부모보다는 공감대를 쉽게 형성할 수 있는 친구들에게 지지를 구하기도 하면서 또한 그들만의 갈등을 경험한다. 이러한 갈등들은 청소년의 사고에서, 행동에서 찾아 볼 수 있겠다.

애착이론은 인간이 특정한 타인과 지속적이며 강한 정서적 유대감을 갖는 경향을 개념화한 것으로(Bowlby, 1982), 유아기에 형성된 양육자, 대개는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는 일생을 통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이다. 애착은 유아와 부모사이에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전 생애를 통하여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형성된다(Ainsworth, 1982). 청소년기에는 부모에게 의존하거나 직접적으로 칭하는 빈도가 줄어들지만 부모가 항상 지켜준다는 확신은 청소년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부모와 안정된 애착관계를 맺고 있는 청소년들은 자신감이 있고 남한테 도움을 청하는데 매우 적극적이며 힘든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거의 보이지 않는다(Armsden & Greenberg, 1987). 아동기에 형성된 부모와의 애착은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이 되어도 계속되며 성장과 함께 부모와의 애착이 친구가 대체하는 부분이 생기게 된다

(O'Donnell, 1976). 애착의 욕구가 친구에게로 옮겨가는 것은 일방적인 보호와 지지를 받는 애착관계에서 서로 보호하고 지지를 받는 애착관계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애착은 전반적인 자아존중감과 대처능력에 영향을 미치지만 또래애착은 사회적 유능감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Paterson, Pryor, & Field, 1995). 또한 연령이 증가하면서 친구에 대한 애착이 증가하고 부모에 대한 애착은 약화되는 경향이 나타나지만(장휘숙, 1997), 부모와의 애착은 여전히 자아존중감과 학업적, 직업적 자기효능감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Paterson et al., 1995).

Bowlby(1982)는 각 개인이 애착대상과의 반복된 상호작용 경험을 통하여 자신,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내적 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내적 작동모델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타인에 대한 신념으로 바뀌어 애착체계를 지배하는 역할을 한다.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개인은 자신과 타인을 신뢰하고 자신이 사랑 받을 가치가 있다는 신념에 바탕을 둔 내적 작동모델을 형성하며, 성장한 이후에도 자신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타인과의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반면에 양육자와 안정되지 못한 애착을 형성한 개인은 자신과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을 가치 없는 사람으로 지각하는 내적 작동모델을 형성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어린 시절에 형성된 부모와의 애착관계는 자라면서 계속 발전되어 새롭고 낮은 세상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탄탄한 근간이 되어(Bowlby, 1982; Ainsworth, 1989) 자신과 타인에 대한 신념을 발달시키고 이후의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원형으로 작용한다(Styron & Janoff-Bulman, 1997).

앞에서 내적 작동모델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타인에 대한 신념으로 바뀌

어 애착체계를 지배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내적 작동모델은 생애의 첫 해에 형성되기 시작하여 아동기,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일상에서 반복되는 학습 결과로 주의, 정보처리, 의사결정과 같은 중요한 인지과정에 영향을 준다. 애착의 인지적, 행동적 요소는 과학습(overlearned)되어 인지적 체계 내에서 자동적으로 작동되며 기존의 작동모델에 부합되지 않는 정보를 배제시킨다(Bowlby, 1980). 이러한 내적 작동모델의 내재화는 인지행동이론에 의해 가정된 자기 그리고 대인관계도식이 형성되는 과정과 유사하다. 내적 작동모델은 신념과 기대와 일치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하는 인지체계 또는 인지적 표상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며, 애착대상의 행동을 해석 및 예측하게 되어 현재와 미래의 반응을 계획한다. 따라서 부모에 대한 안정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아동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표상으로 자기 자신은 사랑스럽고 유능하며 타인들은 신뢰할 수 있고 일관적이며 따뜻하다는 내적 작동모델을 발달시키지만, 부모로부터 거부와 냉대를 경험하여 거리감이 있는 것으로 내적 작동모델을 발달시킨 아동은 우울증이나 불안을 경험할 수 있다(Bowlby, 1973). 불안정한 애착을 가진 사람은 역기능적 인지와 낮은 자기존중감을 보이면서 우울해지며(Roberts, Gorilb, & Kassel, 1996), 긍정적인 정보를 차단하고 중성적이고 부정적인 정보를 더욱 부정적으로 지각함으로써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Beck, 1976). 우울과 불안에 대한 인지적 특성이 역기능적인 도식에 의해서 자동적 정보처리를 하므로(Beck & Emery, 1985), 우울한 사람들은 부정적 자기 관련 사고로 이끄는 자동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Beck, 1976).

우리는 어떤 사건에 접하게 되면 대개 자동적으로 어떤 생각이나 영상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를 자동적 사고(automatic thoughts)라고 한다(Beck,

1976). Beck과 Emery(1985)에 따르면, 자동적 사고의 과정은 개인의 과거 경험들이 추상화되어 축적된 인지적 구조, 즉 인지도식(cognitive schema)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인지도식이 개인의 긍정적인 과거 경험으로 축적된 경우에는 개인이 심리적 혼란에 빠지지 않을 수 있지만, 부정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었을 경우 심리적 문제에 매우 취약하게 되기 쉽다. 다시 말하면 부정적 자동적 사고는 인지도식 즉 역기능적 신념에서 비롯된다고 하겠다. 자기 자신이나 타인 혹은 세상 일반에 대하여 절대주의적이고 완벽주의적이며 융통성이 없는 비현실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역기능적 신념을 가진 개인이 있다면, 이러한 역기능적 신념은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지 않으며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추상적이고 일반적 신념이 된다. 이 신념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극단적이고 과도한 정서경험이 초래된다. 이런 역기능적 신념을 토대로 특정한 상황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의 위협 정도나 그러한 상황에 대한 자신의 대처 능력 혹은 대처행동의 결과에 대해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구체적인 생각이나 영상이 부정적 자동적 사고이다(권정혜, 1993; Fennell, 1989). 다시 말하면 매일 생활에서 일어나는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통하여 개인의 역기능적 신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Bowlby(1980)의 자기, 타인, 세상에 대한 내적 작동모델은 Beck(1976)의 자기, 세상, 미래에 대한 인지도식과 다른 용어로 설명될 뿐 거의 유사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Holmes, 1992). 어린 시절 반복적으로 경험되는 애착 안정성은 인지도식에 영향을 주게 되며, 자신과 세계를 평가하는 규칙을 제공하는 인지도식은 심리적 안녕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된다. 따라서 부모와의 불안정한 애착을 가질수록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자기표상 또는 자기도식이 형성되며 이는 인지도식의

로 잠재되어 있다가 부정적 생활사건을 접하게 되면 우울 생성적 인지도식이 활성화되어 우울을 경험하게 되므로(Bowlby, 1980; Holmes, 1992), 붕괴된 애착유형의 개인이 지닌 인지도식은 우울 개인의 인지도식처럼, 비적응적 정보처리를 촉발시킬 수 있다(Ingram & Bailey, 1997).

우리 사회와 학교현장에서는 청소년의 학교폭력이나 집단폭력 행위에 대한 심한 우려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기는 하지만, 높은 수준의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청소년은 종종 품행장애나 적대적 반항장애를 가지는 것으로 진단되기도 한다(곽금주, 1998). 따라서 청소년기의 대표적인 행동문제 중 하나인 공격성이 부모애착과 인지과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겠다.

공격성은 관찰 가능한 행동 뿐 아니라 지각된 의도, 행동결과, 행위자의 역할과 지위, 사회적 가치 등의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심리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 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한다. 좌절-공격 가설에 의하면 사람들은 목적을 이루려고 할 때 방해받거나, 제지를 당하면 좌절을 경험하고 이 좌절이 공격성을 일으킨다고 하며, 이 좌절과 공격성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근거가 많다(Berkowitz, 1993). 사회인지이론에서는 사고, 기억, 해석과 같은 사회적 인지적 변인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사회적 정보처리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져 공격행동이 나타난다고 본다(Dodge, 1982). 공격적인 사람은 갈등의 원인과 책임을 왜곡해서 귀인하고 단서를 적대적으로 해석하며, 유사한 사건에 대한 과거의 경험으로 현재의 사건을 해석한다. 일반적으로 당면한 사건에 대하여 반응으로 과거의 기억과 목표 등을 활용하여 취할 수 있는 행동을 고려하게 된다. 공격성에 대한 인지행동접근에서도 공격적인 행

동이 단순하게 외부의 자극에 의해 촉발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아동의 개인의 평가에 기인한다고 본다. 즉 상황을 평가하고 사회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아동의 인지적 특성이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중요한 매개요인이 된다는 것이다(박형원, 2002). Kendall(1993)은 공격적인 아동의 인지적인 특성에 대해 인지적 왜곡과 인지적 결핍을 나누어 설명하였다. 인지적 왜곡은 역기능적 사고과정을 말하며, 인지적 결핍은 행동에 앞서 더 많은 사고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인지적 활동이 불충분한 것이다. 공격적인 아동의 인지적 결핍은 사회적인 상황에서 필요한 단서들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나타난다.

공격성을 포함한 행동 문제의 발달과 애착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은 여러 연구에서 지지되어 왔다(Main, Kaplan, & Cassidy, 1985; 이소희, 노경선, 손석한, 옥정, 김광일, 2002). 양육자가 아동의 신호에 민감하고 반응적일 때 아동의 욕구는 충족되고, 아동 자신이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믿게 되고, 자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자신감 획득에 성공하게 된다(Weinfield, Sroufe, Egeland, & Carlson, 1999). 반면 양육자가 아동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아동의 욕구에 민감하지 않은 경우, 아동은 축적된 좌절을 경험하고 지속적인 두려움을 갖는다(Weinfield et al., 1999). 그러므로 불안정한 애착관계를 형성한 아동이 안정 애착을 형성한 아동보다 행동 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은 민감하지 않고 비순응적인 양육으로 인해 아동이 부적응적인 감정 조절과 의사소통패턴을 갖기 때문이다. Laible과 Thompson(1998)은 아동의 내적 작동모델은 정서의 이해 및 기억에 영향을 미쳐 안정애착 아동은 긍정적 사건을 더 잘 기억하지만 불안정 애착 아동은 부정적 감정을 더 잘 기억하고 처리

하는 등 부정적 감정에 더 민감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불안정 애착 아동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부정적 감정에 더 자주 노출되고 대응했기 때문이다. 또한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아동은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고, 더 불어 능력 있고 가치 있는 존재로서의 자신에 대한 내적 실행 모델을 발달시키지 못한다. 그러므로 불안이나 좌절을 일으키는 상황에 대한 대처에 미숙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부적응적 행동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Turner(1991)의 연구에서는 안정애착 아동에 비해 불안정 아동은 공격적, 파괴적 독단적, 통제적 행동을 많이 보였고 공격적 행동을 포함한 문제 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교사에 의해 평정되었다.

위에서 제시한 대로 부모와의 상호작용의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내적 작동모델과 역기능적인 인지도식이 표면적으로 활성화되는 자동적 사고와 관련을 고려해볼 수 있다. 불안정한 애착이 어떤 생활 사건에서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를 떠올리게 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부·모 애착, 자동적 사고, 공격성의 관계를 함께 본 연구가 없었으므로,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부 애착과 모 애착에 따라 자동적 사고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또한 애착과 자동적 사고가 청소년의 공격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13개의 중 고등학교로부터 총 89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중2 197명

(22.1%), 중3 201명(22.5%), 고1 236명(26.4%), 고2 259명(29.0%), 남학생 428명(47.9%)과 여학생 495명(52.1%)으로 성별과 학년 분포는 비슷하였다.

측정도구

부·모 애착 척도

Armsden과 Greenberg(1987)가 개정한 부모, 또래 애착 척도 개정판(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R)을 옥정(1998)이 번안한 것 중 부·모에 대한 애착 척도를 사용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 애착을 구분하여 25문항씩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사소통의 질, 상호 신뢰의 정도, 소외의 정도라는 세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의사소통요인은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고 대화할 때 의견을 존중해주며, 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고 보는 요인, 신뢰감 요인은 부모가 자신을 믿어준다고 생각하고 존경하고 신뢰하는지를 묻는 요인, 소외감 요인은 자신에게 무관심하며 아무에게도 이해 받지 못한다는 느낌과 좌절 정도를 보는 요인을 나타낸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Likert형의 척도로 평정되며, 소외감요인을 구성하는 문항과 부정적인 문항은 역채점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이 잘 되어 있음을 뜻한다. 옥정(1998)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부애착 .93, 모애착 .92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부 애착 모애착 모두 .93이었다.

한국판 아동기 자동적 사고 척도(K-CATS)

문경주, 오경자, 문혜신(2002)이 번안한 아동기 자동적 사고 척도(Children's Automatic Thoughts Scales: CATS)를 사용하였는데 Schniering과 Rapee(2001)가 개발한 것이다. 이 척도는 실패나 좌절, 무망감과 관련된 개인적 실패를 측정하는 우울

인지, 타인이 자신에게 적대적인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지각과 그에 대한 복수를 하고자 하는 개인의 의도를 측정하는 적대적인지,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이 타인에 의해 부정적인 평가를 받거나 비웃음을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는 사회불안 인지, 자신 또는 주변사람들의 신체적 상해와 관련된 인지적 내용을 측정하는 신체적 위협 인지의 4개 영역으로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내용에 대해 지난 1주일동안 얼마나 자주 생각했는지를 응답하는 것으로 “전혀 한 적이 없다”(1점)에서 “아주 자주 했다”(5점)까지 5점 척도로 점수가 매겨진다. 그리고 점수의 총합을 문항 수로 나눈 평균을 개인별 자동적 사고 척도의 점수로 삼았으며 이 점수가 높을수록 자동적 사고를 많이 하는 것으로 여긴다. 문경주 등(2002)의 한국판 아동·청소년용 자동적 사고 척도의 타당화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 계수가 .94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94이었다.

공격성 척도

노안녕(1983)이 번안한 Buss와 Durkee(1957)의 ‘공격성 진단검사’를 사용하였다. 공격행동(폭행, 간접적 공격성, 흥분성, 부정성, 언어적 공격), 적의성(원한, 의심), 그리고 죄의식의 8개 하위 영역 총 7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8개 하위영역을 각각으로 나누지 않고 공격행동, 적의성, 죄의식으로 3가지 하위 요인으로 묶어서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강제 선택형으로 예(2점), 아니오(1점)로 점수가 매겨지며, 75 문항 중 15개 문항은 도치되어 있어 역으로 채점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척도의 하위요인 중 공격행동은 육체적 폭력 행위, 악의 있는 헐담이나 짓궂은 장난, 화를 내

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 협동하기를 거절하거나 반항하는 행위, 언어를 매개로 위협하고 저주하는 행위에 관한 것이며, 적의성은 실제로 혹은 상상적인 확대로 인해 현실에 대해 갖는 분노의 감정으로 타인을 질투하고 증오하며 타인을 믿지 못하며 지나치게 세심하여 다른 사람에게 적개심을 투사하는 하는 내용이다. 죄의식은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에 대하여 나쁘다고 느끼는 정도를 묻는 내용이다.

노안녕의 연구에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92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가 공격행동 .80 적개심 .72, 죄의식 .61, 전체 .83 이었다

자료 분석

자료 처리는 SPSS 11.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상관관계, 일원변량분석,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부·모 애착에 따른 자동적 사고의 차이

우선 부·모 애착과 자동적 사고의 관계를 상관계수를 통하여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부애착과 자동적 사고 간에는 부적상관($r = -.25, p < .001$)이, 모애착 사이에서도 자동적 사고에 있어서 유의미한 부적상관($r = -.31, p < .001$)을 보이고 있다. 즉, 부애착, 모애착이 높을수록 자동적 사고는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모애착의 하위 변인 중 의사소통, 상호신뢰와 자동적 사고의 하위 변인인 적대적 인지 사이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부·모 애착에 따른 자동적 사고의 차이를 알

표 1. 부 · 모 애착과 자동적 사고 상관계수(r)

	자 동 적 사 고					
	우울인지	적대적인지	사회불안인지	신체적위협인지	자동적사고합	
부애착	의사소통	-.24***	-.10***	-.16***	-.13***	-.21***
	상호신뢰	-.28***	-.08*	-.20***	-.17***	-.25***
	소 외 감	.27***	.13***	.20***	.14***	.25***
부애착합	-.28***	-.11**	-.19***	-.16***	-.25***	
모애착	의사소통	-.27***	-.04	-.17***	-.17***	-.23***
	상호신뢰	-.31***	-.03	-.21***	-.18***	-.26***
	소 외 감	.34***	.16***	.26***	.28***	.34***
모애착합	-.34***	-.07*	-.23***	-.23***	-.30***	

* $p < .05$, ** $p < .01$, *** $p < .001$

아보기 위하여 중앙치를 기준으로 부 · 모 애착 상 · 하 집단을 구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점수가 높은 집단은 부 · 모 애착이 안정적이고 낮은 집단은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부 애착 상 · 하 집단에 따른 자동적 사고($F=25.44, p < .001$)와 모애착 상 · 하 집단에 따른 자동적 사고($F=54.28, p <$

.001) 모두, 두 집단들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자동적 사고의 차이는 부 · 모 애착 상 집단이 부 · 모 애착 하 집단보다 낮게 나타났다. 자동적 사고의 하위 변인인 적대적 인지는 모애착 상 · 하 집단에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 자동적 사고의 하위 변인들인 우울 인지, 사회불안 인지, 신체적 위협인지에 비하여

표 2. 부 · 모 애착 상하집단에 따른 자동적 사고 차이

	부 애 착			모 애 착		
	상 (N=421)	하 (N=438)	F	상 (N=422)	하 (N=411)	F
자동적 사고						
우울인지	1.94(.87)	2.29(.89)	34.16***	1.86(.80)	2.36(.91)	70.69***
적대적인지	3.06(.93)	3.19(.92)	4.56*	3.07(.98)	3.17(.87)	2.57
사회불안인지	1.87(.85)	2.13(.91)	18.45***	1.82(.82)	2.17(.92)	33.31***
신체적 위협인지	1.87(.91)	2.03(.94)	5.89*	1.77(.85)	2.11(.97)	28.69***
자동적사고합	2.12(.69)	2.36(.71)	25.44***	2.05(.67)	2.41(.71)	54.28***

* $p < .05$, *** $p < .001$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부애착($r=-.28, p<.001$), 모애착($r=-.34, p<.001$)과 우울 인지 간의 상관관계는 자동적 사고의 하위 변인인 우울 인지, 적대적인지, 사회불안 인지, 신체적 위협 인지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애착($F= 34.16, p<.001$)과 모애착($F=70.69, p<.001$)이 높을수록 우울 인지를 낮게 하였다.

부·모 애착에 따른 공격성 차이

부·모 애착과 공격성 사이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부·모 애착과 공격성 사이에 모두 유의미한 부적상관($r=-.16, p<.001$)을 보였다. 이는 부·모 애착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부·모 애착과 공격성의 하위 변인을 살펴보면, 모애착의 하위 변인 중 의사소통, 상호신뢰와 공격성의 하위 변인인 죄의식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부애착의 하위 변인인 소외감과 죄의식 사이에는 유의미한 정적상관($r=.13, p<.001$)이, 모애착의 하위 변인인 소외감과 죄의

식 간에도 정적상관($r=.17, p<.001$)이 나타났다. 또한 공격성의 하위 변인 중 적의성과 부애착 사이에서 유의미한 부적상관이($r=-.23, p<.001$), 모애착과 적의성 간의 유의미한 부적상관($r=-.23, p<.001$)이 나타났다. 특히 공격성의 하위 변인들 중에서 적의성은 부·모 애착과 가장 높은 부적상관을 보이고 있다.

부·모 애착 상·하 집단에 따라 공격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부애착에 따른 공격성($F=15.71, p<.001$)과 모애착에 따른 공격성($F=11.75, p<.01$)은 부·모 애착 상하 집단들 사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공격성의 차이는 부·모 애착 상 집단이 부·모 애착 하 집단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부·모 애착이 높을수록 공격성은 낮아짐을 의미한다. 그러나 공격성 하위 변인 중 죄의식은 부·모 애착의 상하 집단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공격성의 하위 변인 중 공격행동은 모애착의 상하집단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부·모 애착과 죄의식간의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표 3. 부·모 애착과 공격성의 상관계수(r)

		공격성			
		공격행동	적의성	죄의식	공격성합
부애착	의사소통	-.09**	-.18***	-.02	-.12**
	상호신뢰	-.12**	-.23***	-.01	-.15***
	소외감	.16***	.24***	.13***	.20***
부애착합		-.13***	-.23***	-.03	-.16***
모애착	의사소통	-.09**	-.18***	-.02	-.12***
	상호신뢰	-.07*	-.22***	-.02	-.11**
	소외감	.19***	.32***	.17***	.24***
모애착합		-.12**	-.25***	-.066	-.16***

* $p<.05$, ** $p<.01$, *** $p<.001$

표 4. 부·모 애착 상하 집단에 따른 공격성 차이

	부 애 착			모 애 착		
	상 (N=428)	하 (N=443)	F	상 (N=418)	하 (N=427)	F
공격성						
공격행동	1.53(.14)	1.56(.15)	7.80*	1.53(.14)	1.55(.15)	3.17
적의성	1.34(.19)	1.41(.19)	32.45**	1.33(.19)	1.42(.20)	41.58**
죄의식	1.63(.23)	1.63(.23)	.00	1.61(.24)	1.64(.22)	3.34
공격성합	1.48(.16)	1.52(.15)	15.71***	1.48(.15)	1.52(.16)	11.75**

** $p < .01$, *** $p < .001$

않았으므로 부·모 애착 상하집단에 따른 죄의식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모애착과 공격행동 간의 유의미한 상관($r = -.12, p < .001$)이 나타났지만 모애착 상하집단에 따른 공격행동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자동적 사고와 공격성의 관계

자동적 사고와 공격성 사이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자동적 사고와 공격성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r = .48, p < .001$)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동적 사고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특히 자동적 사고의 하위 변인 중 우울 인지($r = .46, p < .001$), 사회불안 인지($r = .58, p < .001$)는 공격성의 하위 변인인 적의성과의 상관정도가 자동적 사고의 하위 변인들인 적대적 인지, 신체적 위협 인지보다 크며, 공격성 하위 변인 중 적의성과 자동적 사고 간의 상관정도($r = .57, p < .001$)가 공격행동, 죄의식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5. 자동적 사고와 공격성의 상관계수(r)

	공 격 성			
	공격성	적의성	죄의식	공격성합
우울 인지	.17***	.46***	.26***	.34***
자동적 사고				
적대적 인지	.41***	.30***	.15***	.43***
사회불안 인지	.22***	.58***	.23***	.40***
신체적 위협 인지	.25***	.36***	.24***	.34***
자동적사고합	.31***	.57***	.29***	.48***

*** $p < .001$

부·모 애착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자동적 사고의 역할

부·모에 대한 애착과 공격성 사이에 자동적 사고가 매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첫째, 부·모에 대한 애착이 공격성을 유의미하게 설명해야 하고 둘째, 부·모 애착이 자동적 사고를 유의미하게 설명해야 하며, 다음으로 자동적 사고의 매개경로를 포함시켰을 때 부·모에 대한 애착과 공격성의 관계가 유의미하게 설명되지 않거나 자동적 사고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보다 작아야 한다. 즉 부·모에 대한 애착은 공격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동적 사고는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야 한다. 앞에서 제시된 검증을 통해, 부·모 애착과 자동적 사고, 부·모 애착과 공격성은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자동적 사고와 공격성이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이 나타났다.

부·모 애착과 공격성 사이에서 자동적 사고

가 매개역할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한 공변량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우선 표 4를 보면, 부 애착과 공격성 사이($F=15.71, p<.001$), 모애착과 공격성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F=11.75, p<.01$)가 나타났으나, 자동적 사고를 공변인으로 공변량 분석한 표 6에서는 부애착과 공격성($F=.22, p>.05$), 모애착과 공격성($F=2.62, p>.05$)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부·모 애착은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 사고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자동적 사고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제할 경우 부·모 애착은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부·모 애착과 자동적 사고 및 공격성의 관련성을 밝히고, 자동적 사고가 부·모 애착과 공격성의 관계를 매개하

표 6. 자동적 사고를 매개로 부·모애착과 공격성에 대한 분석

종속변인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공격성	공변량(자동적사고)	3.28	1	3.28	227.88***
	부애착		1	.04	.22
	오차	11.841	856	.01	
	전체	1974.72	859		
	공변량(자동적사고)	3.149	1	3.15	237.24***
	모애착		1	.003	2.619
	오차	11.468	830	.01	
	전체	1911.172	833		

*** $p<.001$

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부애착이 높을수록 자동적 사고가 유의미($F=25.44, p<.001$)하게, 모애착이 높을수록 자동적 사고가 유의미($F=54.28, p<.001$)하게 낮았다. 그리고 부애착과 모애착 모두 자동적 사고의 하위요인인 우울 인지, 적대적 인지, 사회불안 인지, 신체적 위협 인지와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결과는 부모와의 애착이 높을수록 실패나 좌절,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복수심, 타인에 의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자신 또는 주변사람들의 신변에 대한 불안을 적게 느낀다는 의미이다. 특히 부애착($r=-.28, p<.001$), 모애착($r=-.34, p<.001$)과 우울 인지 간의 상관은 자동적 사고의 하위 변인들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부애착($F=34.16, p<.001$)과 모애착($F=70.69, p<.001$)이 높을수록 우울 인지를 낮게 하였다. 이것은 우울 인지가 우울과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는 문경주 등(2002)의 연구 결과를 통해 부·모 애착이 높을수록 우울 성향이 낮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적대적 인지는 다른 인지들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 이런 결과는 문경주 등(2002)의 연구에서도 같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다른 인지요인들 보다 적대적 인지가 가장 높은 평균점수가 나오는 현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을 가진 청소년들은 적응적인 인지도식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자신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수용하고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그들의 부모가 청소년 자신들의 감정이나 의견을 존중해 주며, 항상 자신들을 격려하고 믿어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들의 생활은 긍정적이고 적응적이며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또한 부모와의 깊은 친밀함은 그들이 스트레스 상황에 놓였을 때 긍정적인 자동적 사고를 하도록 할 것이며, 매사에 자

신감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심리적인 힘을 제공할 것이다. 결국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은 청소년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부모가 그들의 든든한 지지자라는 믿음은 자신들이 사랑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느끼게 할 것이며, 그들이 속한 집단에서도 긍정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여겨진다.

부·모 애착에 따른 공격성의 차이를 검증 결과, 부애착이 높은 집단($F=15.71, p<.001$), 모애착이 높은 집단($F=11.75, p<.01$)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공격성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이는 부모와 불안정된 애착이 공격성을 더 높게 한다는 Main과 Goldwyn(1984), 이소희 등(2002)의 연구와 일치한다.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청소년들은 친구들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할 수 있고, 자신과 타인에 대해 긍정적이므로 문제행동을 적게 나타내지만, 불안정한 애착을 가진 청소년은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표상 때문에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Allen, Bell, Moore, & Kupermine, 1998). 그러므로 청소년기의 공격성에서도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학업문제로 학교, 학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 부모와 대화할 시간을 내기가 힘들므로, 가족이 함께 나누고 자녀들과 깊이 있는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의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

자동적 사고와 공격성은 유의미한 상관($r=.48, p<.001$)이 있었는데 자동적 사고내용이 부정적일수록 공격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즉 자신과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이나 인지적 왜곡은 공격행동을 유발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된다. 공격성 역시 인지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공격적인 아동은 인지적 왜곡이 심하

고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다. 이로써 청소년이 어떤 생활사건에 놓였을 때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그들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과도한 학습량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내용의 자동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인지행동적 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부정적인 정서를 결정하는 자동적 사고는 환경적 자극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과장되게 내용을 해석하여 환경적인 사건이나 상황을 부정적인 의미로 체계적으로 왜곡시킨다. 이런 인지적 왜곡은 역기능적인 인지도식을 형성하여 부정적 생활사건보다 자동적 사고의 내용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부정적 자동적 사고는 편파적인 사고, 무책임한 의사결정, 자신과 타인을 부정적으로 지각으로 유발되는 공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부모애착과 공격성에서 자동적 사고의 매개 역할을 밝히고자 하였다. 부·모 애착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자동적 사고가 매개 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공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 애착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간접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애착과 공격성에 자동적 사고의 매개경로를 포함시키면 부·모 애착은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즉 부·모 애착은 그 자체로 공격성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자동적 사고와 관련된 방향으로 형성될 때에 공격성이 발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 형성되는 내적 작동모델이 긍정적인 인지도식으로 이루어지면 긍정적인 자동적 사고를 하도록 영향력을 미칠 것이며, 이로 인해 공격성과 같은 문제행동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된다. 청소년의 공격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모, 친구,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감과 친밀감을 증진시키는 것

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대부분 청소년이 자신, 타인,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인지도식을 가지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차적인 대상은 부모이다. 그러므로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지나친 기대와 자녀에 대한 진실한 이해의 부족은 자녀들을 주눅 들게 할 수 있고, 부정적인 인지도식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이 긍정적이고 적응적인 사고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부모의 충분한 사랑과 수용, 이해와 지지가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잘 하는 부분을 지지해주고 수용함으로써 자기 자신도 무엇인가를 잘 할 수 있으며, 신뢰받고 사랑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자동적 사고는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그들의 자동적 사고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인지행동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된다. 즉 가정에서 뿐 아니라 학교에서도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세심한 지도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부모애착은 주로 유아기에 형성되므로 현재 느끼는 부모애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자동적 사고, 공격성과의 관계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자동적 사고의 하위 요인인 적대적인지가 다른 인지보다 높은 원인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중 2, 3학년과 고등학교 1, 2학년을 동시에 연구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령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학년과 남녀를 동시에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자동적 사고와 공격성간에는 정적 관계가 검증되었는데, 한 가지 특기할 사항은 자동적 사고와 공격성에서 성차가 나타났다. 자동적 사고는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높았지만 공격성은 여학생이 높았다. 이러한 일관

성 없는 결과의 원인을 알아보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자동적 사고와 공격성에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정서적 지지를 해주는 또래와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는 연구도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 강진경 (2000). 아동기의 부모에 대한 내적 표상과 성인기의 낭만적 애착. 이화여자대학교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 고경애 (1983). 모자녀 애착 관계가 유아의 행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사회적, 인지적 능력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 곽금주 (1998). 사회인지발달적 관점에서 공격성의 평가와 중재에 대한 탐색. 심리과학, 6(2), 1-18.
- 곽금주, 윤진 (1992). 공격성의 사회인지적 매개 과정에 의한 두 가지 기초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6(2), 1-10
- 권정혜 (1993). 인지행동치료의 실제. 한국심리학회 동계연수회 자료집.
- 권혁희 (2002). 우울에 있어서의 부정적, 긍정적 자동적 사고와 인지균형과의 관계. 상담학연구, 3(2), 305-321.
- 김선희, 오경자, 박중규, 이은정 (2001). 애착유형에 따른 심리적 특성-인지적 변인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1), 105-119.
- 김영혜 (1999). 청소년 부모-자녀간의 애착과 스트레스 대처 방식이 심리적 안녕감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 김재희, 주은선 (2001). 부적응 청소년집단의 애착유형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3), 107-125.
- 김향미 (2001). 놀이 중심의 인지적 행동수정 훈련이 아동의 공격성, 분노,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 노안녕 (1983). 비행 청소년에 있어서 공격성과 불안 감소에 미치는 자기주장 훈련의 효과. 서울대학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 문경주, 오경자, 문혜신 (2002). 한국판 아동·청소년용 자동적 사고척도(K-CATS)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4), 955-963.
- 민경환 (2002). 성격심리학. 서울: 법문사
- 박형원 (2002). 공격적인 아동을 위한 인지행동집단의 교육적 활용. 연세교육연구, 15(1), 37-54.
- 옥 정 (1998). 청소년기 애착안정성과 우울성향의 관계-지각된 유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이화여자대학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 옥 정, 오윤희, 정현옥 (2001). 청소년기 애착유형과 지각된 부모양육행동: 재소중인 비행집단, 위험집단, 정상집단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2), 259-270.
- 이소희, 노경선, 손석한, 옥정, 김광일 (2002). 청소년의 애착상태와 문제행동과의 관계-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중심으로-. 신경정신의학, 41(2), 274-282.
- 이정운 (1996). 사회불안과 우울의 인지특성: 비합리적 신념, 역기능적 태도, 핵심신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11(2), 199-211.
- 장휘숙 (1997). 청소년기의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 한국인간발달학회지: 인간발달연구, 4(1), 88-106.

- 장휘숙 (2004). *청년심리학*. 서울: 학지사.
- 조용래 (1999). 역기능적 신념과 사회공포증상간의 관계에서 부적응적인 자동적 사고의 매개효과 검증: 구조방정식모델 접근법을 사용하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8(1), 17-36.
- Ainsworth, M. D. S. (1982). In C. M. Parkes, & K. Stevenson-Hinde (Eds.), *The place of attachment in human behavior*(pp.3-30). New York: Basic Books
- Ainsworth, M. D. S. (1989). Attachments beyond infancy. *American Psychologist*, 44(4), 709-716.
- Allen, J. P., Bell, K. L., Moore, C., & Kupermine, G. P. (1998). Attachment and adolescent psychosoci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69, 1406-1419.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3.
- Beck, A. T. (1976). *Cognitive therapy and the emotional disorder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Beck, A. T., & Emery, G. (1985). *Anxiety disorders and Phobias: A Cognitive Perspective*. New York: Basic Books.
- Berkowitz, L.(1993). *Aggression: Its causes, consequences, and control*. New York: McGraw-Hill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Separation*, 2.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Loss, Sadness and Depression*, 3.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82). Attachment and loss: Retrospect and prospect.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2(4), 664-678.
- Buss, A. H., & Durkee, A. (1957). An inventory for assessing different kinds of hostility.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1, 343-349.
- Dodge, K. A. (1982). Behavioral antecedents of peer social status. *Child Development*, 54, 1386-1399.
- Fennell, M. (1989). Depression. In K. Hawton, P. M Salkovskis, J. Kirk, & K. M. Clark(Ed.), *Cognitive Behavior Therapy for Psychiatric Problems: A Practical Guide*(pp 169-234).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olmes, J. (1992). *John Bowlby and Attachment Theory*. London and New York: Rouledge.
- Ingram, R. E., & Bailey, K. A (1997). *Depressotypic information processing in individuals with disrupted attachment*. Unpublished Manuscript
- Kendall, P. C. (1993). Cognitive-behavioral therapies with youth: guiding theory, current status, and emerging developments. *Journal of Consulting Clinical Psychology*, 61, 235-247.
- Laible, D. J. & Thompson, R. A. (1998). Attachment and emotional understanding in preschool children. *Development Psychology*, 32, 1008-1024.
- Main, M., & Goldwyn, M.(1984). Predicting rejection of her infant from mother's representation of her own experi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 Abuse and Neglect*, 8, 203-217.
- Main, M., Kaplan, N., & Cassidy, J. (1985).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In I. Bretherton & E. Waters(Eds.), *Growing points in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66-104.
- O'Donnell, W. J. (1976). Adolescent self-esteem related

- to feelings toward parents and friend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3), 301-315
- Paterson, J., Pryor, J., Field, J. (1995). Adolescent attachment to parents and friends in relation to aspects of self-esteem.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4(3), 365-376.
- Roberts, J. E., Gotlib, I. H., & Kassel, J. D. (1996). Adult attachment security and symptoms of depression: The mediating roles of dysfunctional attitudes and low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10-320.
- Styron, T., & Janoff-Bulman, R. (1997). Childhood Attachment and Abuse: Long-term Effects on Adult Attachment, Depression, and Conflict Resolution. *Child Abuse & Neglect*, 21(10), 1015-1023.
- Turner P. J. (1991). Relations between attachment, gender, and behavior with peers in preschool. *Child Development*, 62, 1475-1488.
- Weinfeld, N. S., Sroufe, L. A., Egeland, B. & Carlson, E. A. (1999). The nature of individual difference in infant caregiver attachment. In J. Cassidy & P. R. Shaver(Eds.),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 68-88. New York: Guilford Publication Inc.

원고접수일 : 2004. 8. 12

수정원고접수일 : 2004. 10. 20

게재결정일 : 2005. 2. 3

Perceived Adolescents' Attachment to Mother / Father, Automatic Thoughts and Aggression

Jeong Nyeo Park

Hae Rim Choi

Sogang University

This study was an attempt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among attachment to father and mother, automatic thoughts and aggression of adolescents. The total subjects were 893 students from 8th to 11th graders (428boys and 465 girls) in Seoul and Kyeonggido.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higher attachment to father and mother is the lower automatic thoughts is. And the higher attachment to father and mother is the lower aggression is. Automatic thoughts and aggression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That is, the higher automatic thoughts level is the higher aggression is. The mediating effect of automatic thoughts in relationship between the attachment to father/mother and aggression was found. When automatic thoughts was controlled, no correlation between parental attachment and aggression was shown.

Key Words : adolescent, attachment, automatic thoughts, aggression